

3·30 부동산대책 한 달...

광주 재건축 아파트값 일단 잡혔다

개발부담금 영향 부동산시장 위축...안정세로 돌아서
“근본대책 아닌 단순 봉합...상승 가능성 여전” 지적도

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3·30대책 발표가 한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과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일단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30대책에 따른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영향권에 포함된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의 매매가가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최근 2~3년새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절반의 성공=3·30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절반의 성공’으로 요약된다.
광주 지역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서구 화정·쌍촌주공아파트와 남구 봉선동 잠미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의 영향으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제동이 걸렸다.
실제 화정주공의 경우 2002년 평당 250만원에 거래되던 집값이 지난해 430만원까지 치솟은 등 2~3년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16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4천만원에서 6천800만원까지 값이 오른 것이어서 재건축 시장으로 인한 기대감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말 7천만원에서 6천800만원으로 소폭 하락

한데 이어 3·30대책 시행 이후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직접적 영향권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3·30대책 발표 직후 보합여 동안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 초기단계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은 5천만~1억5천만원까지 하락했다. 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3·30대책 이후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균 5천만원이 떨어졌다.
투기지역내 일반아파트도 대체로 가격 상승을 멈추고 거래가 중단된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시장의 경우도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후속대책 나오나=3·30대책의 후속

입법은 미완의 상태. 대책의 핵심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과 재건축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뒤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골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제정 법률안은 19일 국회 건교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고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야당의 반발이 크지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예상이다. 다만 여야가 사학법 등 쟁점법안들과 이를 묶어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협상중이어서 법안이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재건축 관련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위헌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제3의 후속 대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회산 아닌 휴회산”=3·30대책이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을 완전히 안정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30대책이 당분간 약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봉합해 놓은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분석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기업·소·식/

LG ‘인터랙티브 TV 냉장고’美서 호평

LG전자는 최근 북미시장에 출시한 ‘인터랙티브 TV 냉장고’가 뉴스위크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뉴스위크 최신호는 1주일간 신상품을 소개하는 ‘The Good Life’코너에서 이 냉장고의 실시간 일기예보 기능을 소개하면서 “냉장고가 식품 저장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아시아판 기사에서 이 제품을 ‘컴퓨터 기능이 있는 냉장고’로 소개하면서 “LG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방에서 필요한 조리법이나 달력, 가족의 메시지나 사진 저장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냉장고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앙드레 김과 가전제품 디자인 협력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26일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에서 이현봉 생활가전총괄 사장과 정국현 디자인전략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앙드레 김과 디자인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제휴로 앙드레 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색상, 문양 등 디자인 패턴의 공동 개발과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가전제품의 디자인은 삼성전자의 디자이너들이 맡되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앙드레 김이 보유한 고유 디자인 콘셉트나 문양, 아이디어 등을 냉장고와 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한다는 것.
앙드레 김은 디자인 외에도 앞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나 간담회, 삼성전자 주최 고객초청 문화행사, 불우 이웃 돕기 행사 등에 참가하는 등 삼성전자의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바자 수익금 장애인 보호시설에 전담

아시아나항공은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2천여만원을 장애인 등 불우이웃 보호시설에 전담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14일 열린 바자회에서 2천31만6천원의 수익금을 모아 ‘선린원’과 ‘작은자들의 집’을 비롯한 장애인 보호시설 4곳과 강서구 불우이웃 보호시설 5곳에 전달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장애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장애인에게 국제선 20%, 국내선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자식 아시아나클럽 회원카드 발급 및 기내 휠체어, 장애인 전용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무료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11 PMP’ 유럽 베스트 디카 선정

삼성테크윈은 유럽이미지출판협회(TIPA)로부터 디지털 카메라 ‘#11 PMP’가 ‘2006 베스트 멀티미디어 디지털 카메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TIPA는 1991년 유럽 12개국의 카메라 및 비디오 전문가 편집자들이 구성된 단체로, TIPA상은 매년 세계 최고 카메라 관련 제품들을 선정해 산업의 ‘오스카상’이라 불린다.
TIPA는 최근 디지털산업 전방에서 컨버전스가 가시화되면서 올해부터 디지털 카메라 분야에서도 ‘베스트 멀티미디어 디지털 카메라’ 부문에 신설했으며 삼성테크윈의 ‘#11 PMP’가 첫 수상자로 선택됐다.
‘#11 PMP’는 올해 2월 출시된 컨버전스 제품으로 최근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월 2만대 이상 팔리고 있는 히트 상품이다.

외환당국 시장개입 ‘전격전’으로 전환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저강도 국지전’에서 ‘고강도 전격전’으로 바뀌었다.
전격전은 신속한 기동과 기습으로 일거에 적진을 강하게 타격하는 작전을 말한다.
외환당국의 개입은 26일 “중전에는 외환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금씩 개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일시에 대대적으로 개입해 당국의 존재를 확

실했다. 이 개입은 “상시적으로 조금씩 개입하는 방식은 환투기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줌으로써 투기를 도와주는 듯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개입방식이 바뀌자 당국이 외환시장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외환시장안정용공고제 발

행한다는 20조2천억원 가운데 차환발행을 제외하면 11조원이 순증발행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자금은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실탄(시장개입용 자금)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터무니 없다”면서 “실탄, 정부의 보유자금이 없더라도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무제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레드 마케팅 패션업계를 중심으로 ‘레드(red)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26일 롯데백화점 본점 스포츠·의류매장에 빨간 티셔츠·신발·머플러 등 각 브랜드별 신제품이 선보였다. 최근들어 빨간색계통 의류 판매는 30%정도 늘어났다.
/연합뉴스

“한·중·일 FTA 땀 수산업 직격탄”

대외경제연구원 “4,400만弗 적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수산업 부문 무역수지는 최소 4천400만달러 적자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업 경쟁력은 중국, 한국, 일본 순이지만 한국의 생산연건상 수출확대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한·중·일 수산업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에

미국산 쇠고기 6월중 수입 재개

지난달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가 최소 8세 이상인 것으로 농림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는 작업장 승인 등 남아있는 수입 재개절차를 밟아 오는 6월중에는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미국 현지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 확인작업을 거쳐 해당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인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협상에서 미국내 사료 규제조치가 본격 시행된 19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광우병 소가 8세 이상이면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부는 확인 작업 결과, 해당 광우병 소의 최근 노출 정도, 치아 표면의 무늬, 치아 마모도 등이 10세 이상의 소와 비슷했고 2004년 12월 가축시장 매매기록 당시에도 치아상태가 ‘SS(Short and Solid)’로 표시돼있었다고 밝혔다. SS는 해당 소의 나이가 8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907원이면 사업포기”

商議, 수출기업 조사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대부분이 이미 ‘출혈수출’을 하고 있으며 환율이 1달러당 907원까지 떨어지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출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최근 환율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조사’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을 1천15.7원, 손익분기점 수준을 985.8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907.0원(대기업 905.2원, 중소기업 908.0원)까지 떨어지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원·엔 환율도 손익분기점 환율인 865.5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일본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재산성 악화 등 피해가 우

려됐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의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올 1·4분기 원화절상에 따른 매출액 손실은 1개사 평균 5.5억원, 영업이익 손실은 1개사 평균 2.6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급격한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율하락분을 수출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ee@

“중국 투자로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경총, 작년에만 2만6천개 상실
최근 11년간 국내 제조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2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對)중국

교역이 본격화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중국 총 투자금액(105억달러)을 바탕으로 국내 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한해에는 모두 2만6천개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국투자는 1995년 7억6000만달러에서 2005년 21억8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에 따라 중국에는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총은 이 같은 추세로 한국기업의 중국투자가 확대될 경우 향후 10년간 36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Lists various job openings from Recruiting Gwangju Network.